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애정의 의미와 작가의식*

안창수**

Ⅱ 차례 Ⅱ

- I. 머리말
- II. 애정의 의미
- III. 작가의식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다섯 편 소설의 의미를 서로 연결해서 『금오신화』를 한 편의 작품으로 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첫 번째 작품인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애정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것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작가의식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 했다.

그 결과 <만복사저포기>는 김시습이 세종 임금과 가졌던 단 한 번의 만남이 자기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그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 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김시습은 세종 임금과의 만남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만남을 통해 자신이 세종 임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드러내려 했던 것이다.

주제어 : 애정의 의미, 삶의 전환, 존재의 의미

* 이 과제는 2012년도 부산대학교 교수국외장기파견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I. 머리말

『금오신화』에는 모두 다섯 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이 때문에 다섯 편의 소설은 개별적인 작품으로 나누어져 읽혀지기도 했고, 작품론에서도 개별적인 것으로 독립되어 다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은 <만복사저포기>→<이생규장전>→<취유부벽정기>→<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의 순서로 실려 있고, 이 가운데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남녀 사이의 애정문제를,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은 꿈을 매개로 한 이계탐색(異界探索)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중간에 위치한 <취유부벽정기>에는 애정과 이계탐색의 문제가 함께 나타나 있다. 일정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작품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은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들이 서로 의미적 관계를 맺으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¹⁾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섯 편의 작품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의식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금오신화』의 모든 판본에서 다섯 편의 작품들은 <만복사저포기>→<이생규장전>→<취유부벽정기>→<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²⁾ 모든 이본들에 나타난 작품의 배열순서가 동일하다는 것은 김시습에 의해 창작된 『금오신화』의 원본에서부터 다섯 편의 작품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동일한 질서 위에 배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김시습이 일정한 목적의식을 갖고 작품들을

1) 안창수,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26집, 영남어문학회, 1994, pp.103-104.

2) 『금오신화』의 판본에 대해서는 아래의 책을 참고 했음.
최용철, 『금오신화의 판본』, 국학자료원, 2003, pp.30-596.

질서 있게 배열함으로써 이들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커다란 하나의 의미를 드러내도록 의도적으로 작품의 수록 순서를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오신화』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작가의 생각도 『금오신화』를 한 편의 소설 작품으로 다루는 데에서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금오신화』를 한 편의 작품으로 보려는 시도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 전 기성(傳奇性)이나 환상성을 중심으로,³⁾ 만남과 헤어짐의 구도를 중심으로,⁴⁾ 비극적 결말구조를 중심으로⁵⁾ 『금오신화』의 의미나 작가의식을 찾아 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금오신화』 소재 다섯 편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그 결과 『금오신화』라는 이름으로 다섯 편의 소설을 묶어서 드러내려 했던 의미나 작가의식을 찾아서 보여줄 수 있었다. 이것은 개별적인 작품으로 분리해서 보았을 때에는 알 수 없었던 『금오신화』 전 편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대하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금오신화』의 다섯 편을 통괄하여 흐르는 구조적 질서를 발견하여 『금오신화』 전체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

3) 신재홍, 「초기 한문소설집의 전기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 『관악어문연구』14권, 서울대국어국문학과, 1989, pp.129-151.

박희병, 「전기소설의 장르 관습과 금오신화」,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pp.198-214.

최기숙, 「귀신의 처소, 소멸의 존재론 -『금오신화』의 환상성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16집, 돈암어문학회, 2003, pp.7-38.

4) 강진옥, 「『금오신화』와 만남의 문제」, 『고전소설 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pp.374-409.

이주영, 「『금오신화』의 작품 구성 원리와 만남의 변주」, 『어문연구』40(3)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pp.123-146.

5) 서규태, 「금오신화의 구조와 작가의식」, 『어문논집』24권, 민족어문학회, 1985, pp.633-648.

될 수 있었다. 다섯 편이 현실(불행)→초현실(행복)→현실(열망)→초현실(상승)의 전기적 구조를 보이며 『금오신화』가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나 초현실 세계로의 상승을 지향하는 작품이라고 본 것이나,⁶⁾ 현실계(불행)와 비밀상계(행복)의 순환구조로 되어 결핍에서 충족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본 것⁷⁾ 등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을 통괄하여 흐르는 구조적 질서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 한 가지 이유를 해명해 줄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은 『금오신화』의 구조적 질서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은 김시습이 일정한 목적의식을 갖고 작품들을 질서 있게 배열함으로써 이들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커다란 하나의 의미를 드러내도록 의도적으로 작품의 수록 순서를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고, 이 작품들을 통괄하여 흐르는 구조적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오신화』는 다섯 개의 장(章)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오신화』를 한 편의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작가인 김시습이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다섯 작품의 의미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드러내려 했다는 가설(假說)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필자는 오래 전에 이러한 관점에서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을 찾아본 적이 있다.⁸⁾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들이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6) 최삼룡, 『금오신화의 구조적 특질』, 『국어문학』21집, 전북대 국어국문학회, 1980, pp.158-159.

7) 김창진, 『금오신화의 순환체계 연구(1)』, 『국제어문』4집, 국제어문학회, 1983, pp.5-37.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논증되고 있는데,⁹⁾ 이것은 이러한 관점이 『금오신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들이 갖는 의미적 관계를 찾아보려는 지금까지의 업적들은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을 한 편의 논문으로 묶어서 다루는 것이어서 논증의 과정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작품과 작품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품에 대한 충실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 편의 논문에서 다섯 편의 작품을 모두 다루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논증과정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들이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가설이 논증되고, 이에 따라 『금오신화』를 한 편의 소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작품에 대한 충실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문에 필자는 과거의 논문을 바탕으로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들을 각각 독립된 한 편의 논문으로 다루는 다섯 편의 글을 통해 논증을 보완하고 논지를 새롭게 가다듬어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들이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는 가설을 새롭게 논증하려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이 글에서는 다섯 편의 작품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작품인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애정의 의미를 찾아본 후

8) 안창수, 앞의 글.

9) 정한국,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지향과 구현화 원리」, 『고전문학연구』22권, 한국고전문학회, 2002, pp.307-334.

김창현, 「금오신화 체제에 나타난 창작방법과 비극적 낭만성」, 『인문과학』45권,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pp.101-123.

그것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작가의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 한다. 작품을 분석한 후 작가의식을 찾아보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다섯 편의 소설이 어떻게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금오신화』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여질 수 있었던가 하는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이다.

<만복사저포기>는 양생과 하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논자들이 남녀의 애정이라는 통로를 통해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찾아보려 했다.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김시습이 사회와 삶과 존재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시습이 자기 자신의 삶을 우의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만복사저포기>에 대한 논자들의 견해는 대부분 사회와 삶과 존재 등에 대해 김시습이 어떤 생각을 드러내려 했는가 하는 것을 찾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만복사저포기>는 이른 시기부터 양생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삶에 대해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해되었다.¹⁰⁾ 그리고 불합리한 사회질서에 대한 반발과 저항의 몸짓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해되기도 했고,¹¹⁾ 만남의 과정을 통해 보다

10)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연구』, 신아사, 1965, pp.494-498.

김용덕, 「만복사저포기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2권,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82, pp.161-174.

이월영, 「만복사저포기와 하생기우전의 비교 연구」, 『국어국문학』120권, 국어국문학회, 1997, pp.186-196.

윤경희, 「만복사저포기의 환상성」, 『한국고전연구』4권,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pp.247-254.

11) 김일렬, 『금오신화의 작품구조』, 『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1984, pp.24-27.

박일용, 「만복사저포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18권, 한국고소설학회, 2004, pp.50-55.

유권석,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해원의 구현 양상 연구」, 『어문론집』58집, 중앙어문학회, 2014, pp.239-240.

가치 있는 존재로 변모하는 존재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해되기도 했으며,¹²⁾ 남녀의 애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욕구를 표현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¹³⁾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다섯 편의 작품들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커다란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가설이 성립되려면, 김시습이 <만복사저포기>에서 사회와 삶과 존재의 모습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다루며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작품으로 드러내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 『금오신화』는 사회와 삶과 존재의 서로 다른 모습을 다섯 편의 작품으로 나누어서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므로,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드러내는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와 삶과 존재에 대한 작가의 생각은 다양한 대상을 통해 다양하게 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하나의 주제로 연결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만복사저포기>가 김시습 자기 자신의 삶을 우의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이른 시기부터 있었다. 정주동은 <만복사저포기>가 세속적인 변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김시습의 수도의 과정을 허구화한 것이라고 했고,¹⁴⁾ 이재수는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김시습 자기 자신의 고독한 처지

12) 강진옥, 『금오신화와 만남의 문제』, 『고전소설 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pp.392-395.
설중환, 『만복사저포기 : 분석심리학으로 읽어보기』, 『한국학연구』15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1, pp.253-254.

백민정,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고독과 사랑의 심리학적 이해와 문학적 의미』, 『어문연구』55집, 2007, p.220.

13)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13집, 1971, pp.37-40.
김문희, 『인물의 내면소설로서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독법』, 『고소설연구』32권, 한국고소설학회, 2011, pp.87-91.

14) 정주동, 앞의 책, p.498.

와 환경을 작품화 한 것으로,¹⁵⁾ 소재영은 세조의 정변에 맞서 처절하게 싸우면서도 좌절해서는 안 되었던 김시습 자신의 생애를 우의적으로 드러낸 것으로,¹⁶⁾ 김정석은 정치현실의 주변에서 서성이다 좌절해서 현실을 등지고 떠났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보았다.¹⁷⁾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만복사저포기>가 김시습의 삶의 어느 한 시점에서의 문제를 다루거나 삶 전체에 나타나는 불우한 환경을 작품화 했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은 삶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문제를 다루거나, 불우한 환경적 조건의 서로 다른 모습들을 드러내었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다섯 편의 작품들이 드러내는 주제가 파편화되어 흩어지게 되므로 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의미적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게 한다.

지금까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가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만복사저포기>가 김시습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어떤 사건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금오신화』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문제 삼으며 다섯 편의 작품으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나가는 수법으로 창작되었다고 보는 관점에 서는 것이 유용하다.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어떤 사건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다섯 편의 작품들을 하나의 의미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 『금오신화』의 해석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15) 이재수,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비교 연구」, 『한국소설연구』, 선명문화사, 1973, p.62.

16) 소재영, 「금오신화의 문학적 가치」, 『국문학논고』, 숭실대 출판부, 1989, p.19.

17) 김정석, 「금오신화에 나타난 김시습의 창작의식」, 『한국어문연구』6권, 한국어문연구학회, 1991, pp.282-283.

의 여부 또한 <만복사저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네 작품들을 계속해서 다루어가며 지속적으로 논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을 순차적으로 다루게 되는 다섯 편의 글을 하나의 의미망으로 묶어서,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들이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때문에 『금오신화』가 한 편의 소설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는 글의 도입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김시습은 5세의 어린 나이에 세종 임금을 만나 장래를 약속 받는 파격적인 은혜를 입었다.¹⁸⁾ 이후 김시습은 세종 임금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고, 이 때문에 세종 임금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김시습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시습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그래서 김시습이 평생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던 사건은 곧 세종 임금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 임금 이래의 역사적 정통성을 무너뜨린 세조 정권이 새로운 역사의 정통 세력으로 등장한 세상에서 세종 임금과의 관계를 직접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므로 세종 임금과의 만남과 세종 임금에 대한 김시습의 그리움, 이것이 남녀의 만남과 애정문제로 우의(寓意)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만복사저포기>에서 주인공 양생은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랑을 이루고, 하씨녀와 헤어지자 세상을 등지고 지리산에 들어가 생을 마친다. 남녀의 애정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럼에도 양생이 단 한 번의 만남과 헤어짐만으로 세상을 등지고 떠났다는 것은 한 번의 만남이 존재의 의미를 바꾸어 놓을 만큼 심각하고 소중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18) 김시습, 『상류양양진정서』, 『매월당집』 권21 서(『매월당전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 화연구원, 1973).

그리고 <만복사저포기>에서의 사랑은 외부인이 개입하지 않는 두 사람만의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외부인이 개입할 수 없는 두 사람만의 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에는 외부 세력이 개입하기도 한다. 이 경우 사랑은 외부 세력과의 관계를 다루게 된다. 그러나 <만복사저포기>의 사랑에는 외부 세력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생과 하씨녀는 그들만의 사랑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은 <만복사저포기>가 사랑의 당사자인 두 인물이 자기들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그들만의 내밀한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II. 애정의 의미

<만복사저포기>는 양생과 하씨(何氏)녀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랑은 단 한 번의 만남과 헤어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서사적 축이 지극히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물들은 몇 차례에 걸쳐 공간을 이동하며 사랑을 나눈다. 이것은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애정의 의미가 인물들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거쳐 갔던 여러 공간에서의 행적을 추적해보는 데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복사저포기>의 공간은 크게 만복사, 개녕동, 보련사, 지리산으로 나눌 수 있고, 인물들은 이 공간을 만복사→개녕동→보련사→개녕동→지리산의 순서로 이동한다. 먼저, 만복사는 주인공들이 처음 만나 결연을 맺었던 공간이다. 주인공 양생은 만복사의 동쪽 방에서 살고 있었으며, 만복사의 법당에서 하씨녀를 만나게 된다.

양생은 일찍이 부모를 잃고 장가도 들지 못한 채 만복사의 동쪽 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양생은 혼자만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달 밝은 밤이면 배나무 밑을 거닐며 고독한 마음을 토로하는 시(詩)를 읊곤 했다. 양생의 시는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배필을 원하고 있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양생이 배필을 만나지 못해 혼자 고독하게 살아야 했던 이유는 삶의 조건이 지극히 열악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부모를 잃고 장가도 들지 못하고 만복사의 동쪽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早喪父母 未有妻室 獨居萬福寺之東房)”¹⁹⁾는 것이 작품에 나와 있는 양생에 대한 정보이다. 이것은 양생이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그런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생의 고독한 삶이 불우하고 열악했던 삶의 조건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생의 고독은 외부세계와 단절된 데에서 오는 것이기도 했다. 양생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도 없이 혼자 사는 인물이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고 있었고, 배꽃이 피는 화창한 봄날에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양생의 사회적 고립감은 그가 지은 작품 첫 부분의 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양생은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둑과 등불로 점을 치며 함께 교류할 사람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만의 공간에서 홀로 시름에 겨워하며 고독을 더욱 깊이 느끼기도 한다(雖家有約敲碁子 夜卜燈花愁倚窓). 양생

19) 본고에서의 <만복사저포기>는 아래 문헌의 것을 대본으로 하며, 앞으로 작품의 본문을 인용할 때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매월당외집』 권 1(『매월당전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생이 배필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의미를 갖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무엇보다 배필을 만난다는 것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 있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양생이 배필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은 그가 열악했던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생에 비해서 하씨녀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십오륙 세의 꽃다운 나이와 선녀처럼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시녀와 노복들을 거느리고 살 정도로 풍요롭고 지체 높은 가문의 규수였다. 그러나 완벽한 삶의 조건과는 달리 하씨녀는 만복사의 부처에게 자신의 박명(薄命)한 처지를 하소연한다.

하씨녀의 불행은 왜구(倭寇)가 쳐들어와 가옥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전란(戰亂)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절(貞節)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정절은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덕목이었고, 정절을 지키는 것으로써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 정절을 지키는 것이 사회의 규범적 질서로 자리 잡고 있었고, 여인들의 행복한 삶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회적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씨녀는 전란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고, 그 때문에 배필을 만나 즐거움을 나누는 인간의 생래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긴 시간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다. 하씨녀는 달 밝은 가을밤과 꽃 피는 봄날을 헛되이 상심으로 보내고 뜬 구름과 흐르는 물을 벗 삼아 무료하게 세월을 보냈다(秋月春花 傷心虛度 野雲流水 無聊送日)고 고백하며,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 하는 자신의 박명

함을 한탄하고 만복사의 부처님에게 배필을 만나게 해 줄 것을 기원하고 있었다. 하씨녀 역시 뜬 구름과 물을 벗 삼아 무료하게 세월을 보내야 하는 열악한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 삶의 전환을 모색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배필을 만날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만복사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삶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복사에서 결연을 맺은 후 양생과 하씨녀는 개녕동 하씨녀의 집으로 간다. 양생은 개녕동에서 3일을 머물며 하씨녀의 극진한 환대를 받는다. 이런 점에서 개녕동은 양생과 하씨녀의 사랑이 밀도를 높이고 깊이를 더해 가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만복사에서 양생은 하씨녀와 결연을 맺었음에도 상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씨녀의 정체를 몰라서 의심스럽고 괴이하게(生雖疑怪) 여겼고, 귀한 집 처녀가 담을 넘어 온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지만(意必貴家處子 踰牆而出), 하씨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자세히 관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然其態度不凡 生熟視所爲). 만복사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알지 못했고, 그 때문에 결연을 맺었음에도 서로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녕동에서 3일을 지내며 하씨녀에 대한 양생의 사랑은 이미 깊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 인연이 있으니
마땅히 술잔 들어 취토록 마셔보세
아가씨는 어찌 그리 쉽게 말씀하시나요
가을 바람에 부채를 버린다는 말을
영원토록 배필이 되어

人生相合定有緣
會須舉白相關珊
娘子何爲出輕言
道我奄棄秋風紈
世世生生爲配耦

아름다운 꽃 밝은 달 아래에서 길이 같이 사세 花前月下相盤桓

위의 시는 양생이 개녕동을 떠나면서 지은 것이다. 양생이 하씨녀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배필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데에서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양생과 하씨녀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의 밀도가 높아지며 양생과 하씨녀는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 처음 개녕동 여인의 집에 왔을 때 양생은 그곳의 그릇을 보고 인간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器皿潔而不文 意非人世). 여인이 귀신이 아닌가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녕동에서 3일을 지낸 후 양생은 하씨녀의 부탁으로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그녀의 부모를 만나고, 그들에게서 하씨녀가 죽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양생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하씨녀와 함께 손을 잡고 웃으며 보련사로 간다. 하씨녀가 귀신인 것을 알았음에도 양생은 이 사실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하씨녀의 정체가 양생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양생이 개녕동에서 3일을 함께 보내며 하씨녀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사이가 되면서 양생은 무의미한 존재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 만복사의 동쪽 방에서 혼자 살며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양생은 모든 사람에게서 무의미한 존재였다. 찾아올 사람도 교류할 사람도 없이 모두로부터 절연되고 잊혀진 상태에서 다만 자신의 외로움이나 한탄하며 보내는 존재였다. 그러나 하씨녀와 만나면서 양생은 하씨녀에게 중요한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

하씨녀는 양생을 처음 만나면서부터 평생 양생의 시중을 들며 살기를

원했고(郎若不我遐棄 終奉巾櫛), 개녕동에 와서도 양생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다.

화창한 날 맑은 강에서 원앙새는 쌍쌍이 놀고	晴江日暖鴛鴦竝
푸른 하늘에 구름 걷히자 비취새가 노닌다	碧落雲銷翡翠遊
종구나 우리도 동심결을 맺었으니	好是同心雙綰結
부채가 가을 바람을 원망하지 않게 해 주세요	莫將紈扇怨清秋

위의 시는 개녕동에서의 이별을 앞두고 하씨녀가 지은 것이다. 쌍쌍이 노니는 원앙새나 비취새처럼 평생토록 양생과 함께 살며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하씨녀와 만나 사랑을 나누며 양생은 이제 하씨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씨녀와의 만남이 양생을 변화시켜 무의미한 존재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녕동에서 하씨녀와 헤어질 때 양생은 은으로 만든 밥그릇을 주며 보련사에 가서 자신의 존재를 부모에게 알려달라는 하씨녀의 부탁을 두 말 없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보련사에 가서 하씨녀의 부모가 딸의 재를 지내는 것을 도와 그녀의 영혼이 하늘로 온전히 떠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양생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인데, 양생의 이러한 변화는 하씨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신뢰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배필을 만나 삶의 의미 있는 전환을 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아보려 했던 양생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생은 하씨녀의 부모를 만나 자신과 하씨녀의 관계를 알려주고, 보련사에서 부모들이 하씨녀의 대상(大喪)을 치르고 명복을 빌 수 있게 해 주었

다. 그러나 양생이 하씨녀의 부모를 만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 하씨녀가 신물로 준 밥그릇을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목에 서있던 양생은 하씨녀의 부모에게 딸의 무덤에 넣었던 부장품을 훔친 도둑으로 오인된다. 양생이 자신과 하씨녀와의 일을 이야기해 주며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지만 여인의 부모는 여전히 놀랍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양생이 죽은 자기들의 딸을 만났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齋)를 베푸는 과정에서 양생을 통해 하씨녀의 존재가 부모에게 알려지게 되자 마침내 여인의 부모는 양생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양생에게 하씨녀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사위의 예로 양생을 받아들인다. 하씨녀의 부모가 양생의 존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은 언제나 그들만의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해가 지고 저녁 불공도 끝나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늦은 시각이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처음 만나고 결연을 맺었던 만복사의 법당과 구석진 판자방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그들만의 공간이었다. 만복사를 떠나 여인의 처소인 개녕동으로 가는 길에서도 사람들은 양생과 함께 있는 하씨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개녕동에 있는 여인의 처소는 다복쭈이 들을 덮고 가시나무가 공중에 높이 솟아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황량한 들판에 있는 여인의 무덤이었다. 보련사에서 하씨녀의 재를 지낼 때에도 사람들은 하씨녀를 볼 수 없었다. 하씨녀가 양생과 함께 있었음에도 여인의 친척이나 절의 스님들은 하씨녀를 볼 수 없었고, 오직 양생만이 볼 수 있었다.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이 세상 사람들과는 절연된 그들만의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들의 만남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양생의 설명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하씨녀의 부모처럼 산 사람이 죽은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양생을 무덤 속의 부장품을 훔친 도둑이라고 했던 것처럼 쉽게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씨녀의 부모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련사는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보련사에서 재를 받은 후 하씨녀의 영혼은 이승을 떠난다. 영혼이 떠나기 전 여인은 양생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다. 자신이 여자의 몸으로서 법도를 어기고 양생을 만난 것은 검소하고 부지런한 아낙네로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평생 부녀자의 도리를 다하며 살고 싶었기(擬欲荊釵椎髻 奉高節於百年 羃酒縫裳 修婦道於一生) 때문이라고 했다. 하씨녀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밥하고 바느질하며 평범한 부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소박한 여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씨녀는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규범적 질서를 준수하려다 전란에 희생되어야 했다.

사회의 규범적 질서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고 소박한 꿈마저 빼앗아 가버렸던 것이다.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마저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규범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규범적 질서는 이미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하씨녀는 규범적 질서의 법도를 넘어서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씨녀의 이런 생각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양생과의 만남 이후 시녀가 찾아와 하씨녀의 행동이 부녀자의 법도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하씨녀는 자신이 양생과 결연을 맺은 것이 비록 사회적 법도에는 어긋나지만 하늘과 부처님이 도와주신 결과라고 하며(今日之事 蓋非偶然 天之所助 佛之所佑),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인간들의 삶을 주

관한다고 하는 하늘과 부처님도 인간들이 생래적 욕망을 충족시키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사회적 규범에 의해 불행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씨녀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양생과 만나 사랑을 나누는 하씨녀의 행위는 규범적 질서를 강요하여 구성원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잘못된 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두 사람의 사랑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씨녀는 양생을 만나기 위해 규범적 질서와 맞서고 있었지만 양생을 만난 이후에는 사회의 질서와 대결하기보다 양생과의 사랑에 몰두할 뿐이었다.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이 외부인이 개입하지 않는 그들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두 사람의 사랑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규범적 질서에 대한 저항의 몸짓은 양생을 만나기 위한 계기로서만 작용하고 있을 뿐이고, 사회와의 관계는 작품에서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있다.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회에 저항하는 하씨녀의 행동으로 인해 <만복사저포기>는 사회와의 갈등을 통해 인간성을 긍정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²⁰⁾ <만복사저포기>를 사회와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볼 수 있으려면 작품의 서사적 전개과정이 사회와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범적 질서에 대한 저항의 몸짓이 양생을 만나기 위한 계기로만 작용하고 있을 뿐 사회와의 관계가 작품에서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만복사저포기>가 사회와의 갈등관계를 드러내려 한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양생과 하씨녀의 사랑이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절연된 사랑이란

20) 임형택, 앞의 글, pp38-40.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복사저포기>에는 외부인의 개입이 차단된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사랑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만복사저포기>가 사랑의 당사자인 두 사람의 관계만을 다룸으로써 사랑의 사회적 의미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교류되었던 그들만의 내밀한 사랑의 문제, 즉 양생과 하씨녀가 자기들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두 사람의 만남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 한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업보를 비껴지나갈 수 없어 하씨는 마침내 저승으로 떠나야 했다. 하씨녀의 영혼이 저승으로 떠나자 양생은 하씨녀가 귀신임을 알고 커다란 상실감에 빠져 하씨녀의 부모와 머리를 맞대고 울었다. 그러나 양생은 처음부터 하씨녀가 귀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만복사의 법당에서 처음 만날 때부터 여인의 정체를 궁금하게 여겼었다(子何如人也 獨來于此).

하씨녀를 만나고 만복사의 뜰에서 술자리가 베풀어졌을 때에도 양생은 차린 것이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의심스럽고 괴이하게 여겼었다(定非人間滋味 生雖疑怪). 그러나 여인의 맑고 고운 말씨와 웃음소리에 이끌려 귀한 집 처녀가 담을 넘어 온 것이라니 하며 스스로 자기의 의심을 지워 버렸다(意必貴家處子 踰牆而出 亦不之疑也). 술자리가 끝나서도 여인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껴 그 행동을 자세하게 관찰하기도 했지만(然其態度不凡 生熟視所爲), 개녕동 자기의 처소로 함께 가자는 여인의 권유를 뿌리치지 않았다. 개녕동에서도 그곳의 모든 것이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하씨녀의 은근한 정에 끌려 다시 의심하지 않으려

21) 양생을 만나기 위해 하씨녀가 규범적 질서에 저항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III.작가의의식의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했다(意非人世 而縉縉意篤 不復思慮). 개녕동에서 사흘을 지낸 후 여인에게 그곳의 사흘이 인간세상의 3년과 같다는(此地三日 不下三年) 말을 들었을 때에도 하씨녀의 정체를 파악했을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반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양생은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하씨녀의 부모에게 그녀가 죽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 드디어 하씨녀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생은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고 하씨녀의 손을 잡고 웃으며 함께 보련사로 갔다.

하씨녀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동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개녕동에서 떠날 때까지는 양생이 하씨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생은 하씨녀에 대한 자기의 의심을 계속 부정하며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하씨녀의 정체를 알고 나서도 모른 척 외면하고 있었다. 자기의 의심을 계속해서 스스로 부정하고 사실을 알고서도 일부러 외면하는 양생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씨녀를 만나고 난 뒤 양생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복사의 동쪽 방에서 혼자 살 때 양생의 삶은 어둡고 우울했다. 봄을 맞아 화사하게 피어 있는 배꽃마저도 그의 어둡고 우울한 삶의 모습을 심화시켜 줄 뿐이었다. 그러나 하씨녀와 결연을 맺은 뒤 두 사람은 만복사의 뜰에서 만남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베풀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개녕동으로 가는 길에서도 양생은 여인과 시를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개녕동에서도 여인의 환대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만남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양생의 삶이 너무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자 있을 때에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던 기쁨과 환희로 양생의 삶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양생이 하씨녀와 만나며 과거에는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환희 속에 잠겨 있었던 것이고, 기쁨과 행복이 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하씨녀의 정체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만남을 계속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만복사의 뜰에서 양생이 여인의 맑고 고운 말씨와 웃음소리 때문에 의심을 거두고 있었고, 개녕동에서도 여인의 환대에 이끌려 자기의疑심을 거두고 있었던 데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만남을 계속하기 위해서 여인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양생이 어둡고 우울했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놓은 하씨녀와의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련사에서 하씨녀의 영혼이 저승으로 떠나며, 이제는 하씨녀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더 이상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양생이 보련사에서 하씨녀가 귀신인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 때에야 비로소 하씨녀가 귀신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씨녀의 정체를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말이다.

하씨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두 사람이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양생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실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하씨녀와 만나면서 경험했던 엄청난 삶의 기쁨과 보람이 모두 허망하게 끝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생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던 개녕동 여인의 무덤을 다시 찾아간다.

양생은 개녕동에서 제문을 지어 하씨녀에게 바치며, 그녀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고 보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회고한 뒤 몸은 비록 흠어졌지만 영혼은 남아있을 것이니 다시 만나서 길이 함께 살 것을 제안한다. 현실 공간에서의 재회가 불가능하다면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염원을 토로하고 있다. 꿈이나 환상의 세계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도 양생이 하씨녀와의 만남을 열

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하씨녀는 공중에서 목소리로 나타나 자신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며, 양생도 정업(淨業)을 닦아 윤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하씨녀가 남자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두 사람이 이제는 결코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업을 닦아 윤회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덧없는 것임을 깨달아 세상의 괴로움이나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업을 닦으라는 하씨녀의 부탁은 결국 자신들의 만남과 사랑이 모두 덧없는 것이니 자기를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는 것이었다. 하씨녀의 말은 꿈이나 환상의 세계에서라도 함께 있기를 바랐던 양생의 마지막 소원마저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씨녀는 보련사에서 저승으로 떠나며 양생과 이승에서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양생에게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저승길이 촉박하여 슬프게도 떠납니다	冥數有限 慘然將別
바라건대 낭군님은 혹시라도 나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願我良人 無或踈闊
슬프다 우리 부모 내 배필을 못 지었네	哀哀父母 不我匹兮
아득한 구원에서 원한만 맺히겠네	漠漠九原 心糾結兮

이처럼 하씨녀는 어쩔 수 없이 이승을 떠나야만 하는 슬픈 심사를 토로하며 양생에게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그러므로 하씨녀가 공중에서 목소리로 나타나 자기를 잊으라고 한 것은 스스로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상에서 양생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을 슬퍼하며 저승으로 떠나는 순간에도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양생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의 모순은 모순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씨녀는 자신의 문제를 부처님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 했고 그 소원을 이루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양생과 만나게 된 것도 하늘과 부처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다(今日之事 蓋非偶然 天之所助 佛之所佑). 이것은 하씨녀가 하늘과 부처에 의해 작동되는 보다 커다란 초월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씨녀가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부처로 대표되는 초월적인 힘과 섭리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씨녀를 저승으로 불러 양생을 절망스럽게 한 것도, 하씨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여 꿈이나 환상의 세계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했던 양생의 마지막 소원마저 무너지게 한 것도 모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초월적인 세계의 운명적인 힘이었던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이며 운명적인 힘이 하씨녀와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 이르러 양생의 상실감은 비할 데 없이 깊어지고 비애와 절망 또한 더할 수 없이 증폭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씨녀와의 만남은 이제 꿈조차도 꾸어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씨녀의 부락을 들은 후 양생은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감춰버린다. 양생은 하씨녀를 통해서 열약했던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세상을 등지고 자신의 존재를 감춰버린 것은 하씨녀가 없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세상을 등지고 떠난 것은 양생이 하씨녀와 함께 나누었던 만남의 경험과 시간을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정업을 닮아 윤희에서 벗어난다는 하씨녀의 부탁을 저버리는 것이다. 정업을 닮아 하씨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자신의 삶에서 무화(無化)시켜버리기에는 그녀와의 만남이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이다.

지리산에 들어가 종적을 감춘 양생의 행위는 일찍부터 자신에게 가해지는 세계의 압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왔다.²²⁾ 이런 해석은 <만복사저포기>가 세계와의 치열한 대결을 작품전개의 중심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로 끝난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작품의 비극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세상의 규범적인 질서에 반발하기도 하고 초월적인 세계의 운명적인 힘이 양생과 하씨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도 하지만, <만복사저포기>는 세계와의 치열한 대결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작품이 아니었다. 또한 실패로 끝난 사랑을 다루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비극성을 드러내려 하기보다 단 한 번의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사랑의 당사자인 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두 사람은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세계의 개입이 차단된 두 사람만의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그들만의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 그것이 <만복사저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임형택, 앞의 글, pp.38-39.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p.127.

김일렬, 『금오신화의 작품구조』, 『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pp.23-24.

Ⅲ. 작가의식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다섯 편의 소설을 하나로 묶어 한 편의 완결된 작품으로 본다는 것은 김시습이 그와 같은 의도와 목적의식을 갖고 『금오신화』를 창작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시습의 의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다섯 편의 작품을 모두 분석하여 의미를 찾아낸 다음 각 작품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려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찾아보는 것은 다섯 편의 작품을 서로 연결하여 한 편의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의미적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우의(寓意)적 의미를 찾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금오신화』는 창작 당시부터 작가의 우의가 담겨진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금오산에 들어가 책을 지어 석실(石室)에 감추고 말하기를 “후세에 반드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 책은 대개 기이(奇異)한 것을 기술하여 거기에 뜻을 부친 것이다(退入金鰲山 著書藏石室曰 後世必有知岑者 大抵述異寓意)²³⁾

위의 글은 본래 김안로가 지은 <용천담적기>에 실려 있는 것이다. 김안로는 『금오신화』가 기이(奇異)한 것을 기술하여 거기에 뜻을 부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안로의 생몰연대가 1481~1537년이고, 김시습이 1493

23) 김시습, 『유적수보』, 『매월당집부록』권 1.

년에 세상을 떴으니 그 때 이미 김안로의 나이가 12세였다. 창작 당시부터 『금오신화』의 우의적 의미를 찾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지어 석실에 감추고 자기를 알아 줄 후세의 독자를 기다렸다고 했다. 석실에 감추었다는 것은 『금오신화』에 예사롭지 않은 사회 비판적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고, 후세의 독자를 기다렸다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장치 속에 감추어두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금오신화』의 해석이 작품의 우의적 의미를 찾아내는 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복사저포기>에서 작품의 우의적 의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찾아질 수 있다. 하나는 <만복사저포기>를 구성하는 구성적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 우의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작품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의적 의미이다.

구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만복사저포기>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만남과 사랑을 다루고 있고, 인물들이 단 한 번의 만남과 헤어짐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고, 그들의 만남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자신들만의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김시습이 만나고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비록 죽었을지라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세종 임금이다. 세종 임금은 5살밖에 안 된 김시습을 대궐로 불러 들여 지신사(知申事) 박이창(朴以昌)을 시켜 천재성을 시험하게 했다. 그러나 “친히 만나보고 싶지만 사람들이 듣고 놀랄까 걱정되니 집으로 돌려보내 잘 기르라(啓傳旨曰 欲親引見 恐駭人聽 宜還授家 親韜晦教養至勤)”고²⁴⁾ 했다. 세종 임

24) 김시습, 『상류양양진정서』, 『매월당집』 권21 서.

금이 김시습을 만날 때 사람들의 눈과 귀를 피해 비밀스럽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듣고 놀랄까 걱정된다는 것은 세종 임금에 한미한 집안의 어린아이를 만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비난하게 될 것을 염려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종 임금과 김시습의 만남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종 임금과의 만남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김시습은 세종 임금을 다시 만날 것을 꿈꾸다가 세조의 정변을 만나 중이 되어 세상을 등지고 떠난다. 김시습이 세종 임금과의 관계가 단절된 세상에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시습은 한미한 무반 출신으로 증조(曾祖) 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하여 아버지는 음보(蔭補)로 충순위(忠順衛)의 하급 직위를 얻었으나 그마저 병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至吾曾祖而止奉翊 父承其蔭纔占仕端 以病故不克就仕).²⁵⁾ 김시습이 살았던 조선 초기는 건국 이래 지배층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사족(士族)과 이족(吏族)을 분리하여 이족이 지배층으로 편입하는 길을 차단하고, 양반 신분이면서도 정실(正室)에서 나지 않은 서얼(庶孽)들의 사회 참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책들을 펼쳤다.²⁶⁾ 뿐만 아니라 무반(武班)들이 지배층의 핵심 세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반(文班) 중심으로 지배층을 구성하기 위한 시책을 펼쳤다.²⁷⁾ 김시습이 자신의 탁월한 재능에 비해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삶의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5) 김시습, 『상류양양진정서』, 『매월당집』 권21, 서.

26) 이성무, 『조선초기의 향리』, 『한국사연구』5호, 한국사연구회, 1970.3, pp.70-85.

이태진, 『서얼차대고』, 『역사학보』27권, 역사학회, 1965, pp.65-104.

27) 김영모, 『조선지배층연구』, 일조각, 1977.12, pp.442-443.

그러나 세종 임금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문제 삼지 않고, 어린 김시습을 대궐로 불러 천재성(天才性)을 시험해 보고, 장차 나라에서 크게 쓸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英廟而召于代言司知申事朴以昌 傳旨問虛實能否 … 啓傳旨曰 … 待年長學業成就將大用).²⁸⁾ 이것으로 말미암아 김시습은 세종 임금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가지게 되었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 임금이 돌아가시고 자기의 뜻과 세상일이 어긋나게 되자 세상을 등지고 방외(方外)의 인물이 된 김시습은 매양 달 밝은 밤이면 이소경(離騷經)을 읊으며 눈물을 흘리곤 했고, 술을 마시고 취하면 “우리 영릉(英陵 - 세종)를 보지 못 했느냐(不見我英陵否)”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한다.²⁹⁾ 김시습이 세종 임금과의 만남 이후 세종 임금을 가슴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며, 일생 동안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만복사저포기>는 김시습이 돌아가신 세종 임금을 간절하게 그리워하며, 세상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내밀한 공간에서 세종 임금과 가졌던 단 한 번의 만남을 작품의 구성적 축으로 하여 창작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복사저포기>를 김시습의 삶과 연결시켜 이해할 때 경계할 것은 작품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찾아보려 하거나, 작중인물들을 양생-김시습, 하씨녀-세종으로 대응시켜 받아들이는 것이다. 초기 연구자들에게 나타났던 이러한 연구 경향은 역사적 사실을 밝혀보거나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데에 머무르게 됨으로써 문학적 형상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과 대응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나, 양생과 하씨녀의 삶이 김시습이나 세종 임금의 삶과 일

28) 김시습, 『상류양양진정서』, 『매월당집』 권21, 서.

29) 김시습, 『유적수보』, 『매월당집부록』 권 1.

치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은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김시습이 세종 임금과 만났던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작품화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 했던가 하는 것이다.

이제 작품의 전개과정을 통해 김시습이 세종 임금과의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만복사저포기>는 만복사에서 양생과 하씨녀가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사람의 만남은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 있는 전환을 꾀하고, 그것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하씨녀가 양생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규범적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시습이 살았던 조선초기는 건국의 공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홍사대 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배타적인 사회체제를 정비해가고 있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한미한 무반 출신의 김시습은 나이 20세가 되도록 관립교육기관이었던 사부학당(四部學堂)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스승을 번갈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삼각산의 절간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등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었다.³⁰⁾ 그러므로 세종 임금과의 만남은 사회적 진출이 쉽지 않았던 김시습에게 삶을 전환할 수 있고 존재의 의미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시습이 세종 임금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세종 임금이 김시습을 만나서 그의 천재성을 시험해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종 임금이 김시습을 만나기 위해서는 규범적 질서의 법도를 넘어서야 했다. “사람들이 듣고 놀랄까 걱정된다(恐駭人聽)”는 말은 세종임금

30) 정병욱, 『김시습 연구』, 『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 pp.39-40.

이 김시습을 만나기 위해 규범적인 질서의 법도를 넘어서야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임금이 한미한 집안의 어린아이를 만난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김시습은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처럼 자신과 세종 임금의 만남도 삶의 전환이 되고 존재의 의미를 바꾸어 놓는 사건이었고, 규범적 질서의 법도를 넘어서야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려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복사에서 만나 결연을 맺은 양생과 하씨녀는 개녕동으로 공간을 옮겨 가며 사랑의 밀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김시습과 세종과의 만남에서 공간의 이동은 없었다. 그러나 공간의 이동은 시간의 경과를 수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을 옮겨가며 사랑의 밀도를 높여가고 있었다는 것은 세종 임금에 대한 김시습의 사랑도 시간이 경과하며 더욱 밀도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갈대가 푸르름이여 이슬이 서리가 되었네	蒹葭蒼蒼兮白露霜
아름다운 사람이여 하늘 저 편에 있구나	有美一人兮天一方
가서 따르려 하지만 언덕이 너무 길구나	欲往從之兮隴坂長
초조하게 근심함이여 여전히 사라지지 않네	憂心悄悄兮猶未央

갈대가 무성함이여 이슬도 차갑구나	蒹葭萋萋兮白露凄
아름다운 사람이여 하늘과 땅처럼 멀리 있구나	有美一人兮隔雲泥
가서 따르려 하지만 길이 아득하구나	欲往從之兮道路迷
근심하여 슬퍼함이여 슬픔만이 더하는구나	憂心怛怛兮增慘悽

갈대가 우거짐이여 이슬도 말라버렸구나	蒹葭依依兮白露晞
아름다운 사람이여 모습도 희미하구나	有美一人兮音容稀

가서 따르려 하지만 계획이 어그러졌구나	欲往從之兮計已非
근심하고 근심함이어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憂心隱隱兮誰同歸

갈대가 무성함이어 이슬도 사납구나	蒹葭漣漣兮白露厲
아름다운 사람이여 백세에 계시는구나	有美一人兮居百世
가서 따르려 하지만 때가 이미 가버렸구나	欲往從之兮時已逝
근심하고 걱정함이어 수심이 생기게 하네	憂心忉忉兮俾我泄 ³¹⁾

<점가(蒹葭)>라는 제목의 시이다. 모두 4연으로 되어 있는 위의 시에는 갈대와 그 위에 내린 이슬을 소재로 해서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다양하게 표출되어 있다. 내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늘 저 편, 구름과 땅의 사이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 모습마저도 희미하지만 백세(百世)의 시간이 지나도록 언제나 그 곳에 있어 내 그리움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걱정과 슬픔에 동참해 위로해 줄 사람마저 없는 외로운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해 근심하는 마음에 슬픔이 쌓여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걱정과 근심 그리고 슬픔이 깊어가는 것은 사랑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졌기 때문이다.

위의 시에는 어진 사람을 생각하며 고금(古今)을 대하여 길이 탄식한다(思賢人也 俯仰古今 悠悠永歎)는 해설이 덧붙여져 있다. 그리워하는 대상을 불특정(不特定) 다수의 현인(賢人)으로 확산시켜 의미의 초점을 흐려놓고 있다. 그러나 위의 시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한 사람(有美一人)”은 “한 사람의 미인(有一美人)”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정과정곡(鄭瓜亭曲)> 이후 임금을 “님”으로 표현하는 시적 전통 속에서

31) 김시습, 『매월당집』 권7.

미인(美人)은 임금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위의 시는 불특정 다수의 현인을 생각하며 썼다고 되어있지만, 사실은 김시습이 한 사람의 미인, 즉 세종 임금을 그리워하며 쓴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5세에 처음 만난 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종 임금에 대한 김시습의 그리움과 사랑이 밀도를 높여가며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생과 하씨녀가 개녕동에서 사랑의 밀도를 높여갈 수 있었던 것은 만남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시습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세종 임금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이 세종 임금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는 영릉(英陵-세종)의 두터이 알아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고생스런 생활을 해도 마땅하지만 공은 나와 다르니 어찌 세도(世道)를 도모하지 않는가 하였다(先生謂之曰 我受英陵厚知 爲此辛苦生活宜也 公則異於我何不爲世道計也)³²⁾

김시습이 남효온에게 한 말이다. 세종 임금의 두터이 알아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세종 임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김시습이 나이가 들면서 세종 임금이 규범적 질서의 법도를 넘어서까지 자신을 만나고 등용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세종 임금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면서 사랑도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다.

개녕동에서 양생은 하씨녀와 사랑의 밀도를 높여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

32) 김시습, 「유적수보」, 『매월당집부록』권1.

라 삶의 의미 있는 전환을 이루고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김시습이 세종 임금과의 만남으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었던 모습을 드러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 임금과 만나 천재성을 증명하고 장래를 약속받은 후 김시습의 명성은 온 나라에 떨쳤고 사람들은 그를 5세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고 한다(莊憲大王聞之 召致承政院試以詩 果捷而佳 下教曰 … 待其學成 將大用 … 於是聲振一國 稱曰五歲而不名).³³⁾ 이것은 세종 임금과 만난 후 세상 사람들이 김시습을 그 천재성으로 인해 장차 나라에 크게 쓰일 인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분의 벽이 강화되어가던 조선 초기의 사회적 상황에서 세종 임금과 만나게 됨으로써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던 김시습이 삶의 의미 있는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렸을 때 아장거리며 황금 대궐에 나갔더니	少小趨金殿
세종 임금께서 비단 도포 내리셨네	英陵賜錦袍
지신사 날 불러 무릎에 앉히고	知申呼上膝
중사를 권해 붓을 휘두르게 하고는	中使勸揮毫
다투어 말하기를 진정한 영물이라 하고	競道眞英物
봉황의 깃털이 나타났다면 쳐다보았네	爭瞻出鳳毛
어찌 알았으랴 집안 일 무너지고	焉知家事替
영락해서 쑥대밭에서 늙을 줄을	零落老蓬蒿 ³⁴⁾

<서민(敍悶)>이라는 제목으로 지은 여섯 수의 시 가운데 둘째 시이다.

33) 이이, 『김시습전』, 『매월당집』전.

34) 김시습, 『매월당집』권14.

김시습이 세종 임금에게 재능을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었다는 것을 회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시습은 세종 임금과 만나며 자신이 아장거리며 걷던 어린아이에서 영물(英物)로, 봉황의 깃털로 대접받으며 대단한 존재로 바뀔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 임금과의 만남이 김시습에게 존재의 의미를 바꾸어 놓을 만큼 소중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개녕동에서 보련사로 옮기며 양생은 하씨녀의 부모에게 사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인정받을 수 있었다. 자신들만의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마침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김시습과 세종의 만남도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이루어졌지만 곧 바로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 내밀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세상에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세종 임금과의 만남을 작품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작품 전개의 중요한 과정으로 설정한 까닭이 무엇일까?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만남은 하씨녀의 부모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임금이 한미한 집안의 5세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만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김시습은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세종 임금과 자신의 만남을 온전히 이해해주기를 바랬다고 할 수 있다.

양생은 하씨녀의 부모와 처음 만날 때 무덤 속의 물건을 훔친 도둑으로 오해받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이 알려지며 양생은 하씨녀의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하씨녀와의 만남이 부

모에게 알려져 인정받는 과정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오인되었던 양생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했다.

김시습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고, 미쳤다고 하고, 말이나 소라고 해도 모두 대답해 주었다고 했다.³⁵⁾ 성격이 우활(迂闊)하여 말과 행동을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망하고 조급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유불도(儒佛道)를 두루 섭렵하여 사상적으로도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세상을 분개하고 시속을 미워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³⁶⁾

그러나 김시습은 세상과 맞지 않아 방외(方外)의 삶을 살아야 하는 데에서 오는 답답하고 울적한 심회를 시를 통해 토로하기도 했고, 강원도 양양(襄陽) 지방의 수령으로 있으며 자신과 친밀하게 지내던 유자한(柳自漢)에게 여러 차례 글을 보내 사람들에게 잘못 전해져 있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바로 잡아 밝히기도 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자기표현의 한 방법이었다 하더라도, 김시습이 수많은 기행(奇行)으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밝혀 보여주고 싶은 욕구를 가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이 부모에게 알려져 인정을 받도록 한 것은 자신과 세종 임금과의 만남을, 그리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김시습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련사에서 하씨녀의 혼백이 저승으로 떠나버리자 양생은 다시 개녕동의 무덤으로 가서 꿈이나 환상의 세계에서라도 하씨녀와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하늘과 부처처럼 인간들의 삶을 지배하는 운명적이며 초월적인 힘에 부딪혀 마지막 기대마저 접어야 했다.

35) 김시습, 『상류양양진정서』, 『매월당집』 권21.

36) 이이, 『김시습전』, 『매월당집』 전.

1449년 김시습은 14세의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외숙모의 보살핌을 받는다. 그러나 외숙모도 곧 세상을 뜨고 아버지는 병으로 집안일을 돌보지 못해 또 계모를 얻는다. 공교롭게도 어머니를 잃은 1년 뒤인 1450년 세종 임금의 돌아가시고, 뒤따라 문종 임금도 돌아가시고 마침내 세조가 정변을 일으켜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사회적 격변기를 맞는다. 이처럼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린 나이의 김시습이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를 겪으며, 김시습은 마음과 일이 어긋나는 것을 절감하고 뜻이 황폐해져서 세상을 등지고 떠났다(心事相違顛沛之際 … 僕之志已荒涼矣 遂伴髡者遊山水)³⁷⁾ 고백하고 있다.

김시습이 겪은 가정적, 사회적 변화는 한 사람의 인간이 어찌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김시습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며 인간들의 삶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세계의 힘을 절감했을 수 있다.

부질없는 인생 일찍이 쉬지도 않고	堪歎浮生早不休
십 년의 책과 검으로 수심을 사왔구나	十年書劍買閑愁
늙는 것 물리칠 신통한 방법 없고	老無可却靈方少
사는 것 늘이지 못해 재목이 우거졌구나	生不長延宰木幽
은총이 지극해도 개 돼지처럼 버려지고	寵極定如芻狗擲
궁하면 물 없는 곳에서 노는 물고기처럼 되네	窮來還似涸鱗游
사람들이 모두 세상이 좋다고 하지만	人人盡說人間好
봄도 인간 세상에서 잠시 머물 뿐이네	春到人間肯暫留 ³⁸⁾

<우탄(寓歎)>이라는 제목의 시이다. 쉬지도 않고 10년 동안 서검(書劍)을 닦아도 수심만 쌓이고, 오래 살고 싶어 안달을 하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37) 김시습, 『상류양양진정서』, 『매월당집』 권21.

38) 김시습, 『매월당집』 권1.

없고, 출세를 하려고 발버둥 쳐보기도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세상이 좋다고 떠들지만 봄날도 잠시뿐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인간들의 삶은 결국 초월적인 세계의 질서 속에서 재단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가정과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겪으며 김시습은 자신과 세종 임금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만남이 온전하게 성취되지 않은 것이 초월적인 세계의 횡포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양생과 하씨녀의 관계가 초월적인 세계의 운명적인 힘에 의해 단절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세종 임금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김시습의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씨녀를 만나려는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져 버리자 양생은 정업을 닦아 윤회에서 벗어나라는 하씨녀의 부탁을 저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지리산에 들어가 종적을 감추어 버린다. 지리산으로 들어간 것은 하씨녀가 없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하씨녀의 부탁을 저버린 것은 하씨녀와의 만남이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종 임금이 돌아가시고 세조의 정변이 일어나자 김시습은 중이 되어 세상을 등지고 떠난다. 세종 임금과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세종 이래의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린 새로운 세상에서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색은 중이었을지라도 그는 온전히 불교에 귀의하여 자신을 맡길 수 없었다. 그는 “불로(佛老)와 같은 이단과 머리 깎은 이와 벗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머리 깎은 이는 물외(物外)의 인간이요, 산수 또한 물외의 경계이기 때문(僕素不好佛老異端 與髡者伴 髡本物外之人也 山水亦物外之境也)”이라고³⁹⁾ 했고, “이도(異道)로써 세상에 이름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묘(光廟-

세조)께서 자주 불렀으나 나아가지 아니했다(然不欲以異道顯世 故光廟傳旨屢召 而皆不就)”고⁴⁰⁾ 했다.

불도를 닦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상(無常)하다는 것을 깨달아 삶의 고통스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김시습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을지라도 불도를 닦아 성취하는 것이 자신의 본래 뜻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세종 임금과의 소중한 만남을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불도를 닦아 삶의 고통스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 즉 세종 임금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물외의 인간과 세상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시습이 중이 되었음에도 세종 임금과의 관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양생이 하씨녀의 부탁을 저버리고 지리산에 들어가 종적을 감춘 것은 세조의 정변으로 세종 이래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중이 되어 세상을 등지고 떠났던, 그럼에도 세종 임금과의 만남을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았던 김시습의 행적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만복사저포기>는 김시습이 세종 임금과 가졌던 단 한 번의 만남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그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양생과 하씨녀의 사랑을 통해서 김시습은 세종 임금과

39) 김시습, 『상류자한서』, 『매월당집』 권21.

40) 김시습, 『상류양양진정서』, 『매월당집』 권21.

의 만남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단 한 번이었지만 그 만남이 얼마나 밀도 있게 이루어졌으며, 만남을 통해 자신이 세종 임금의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드러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김시습은 사람들이 세종 임금과의 만남을 온전하게 이해해주고, 기행으로 왜곡되어 있는 자신의 본래 모습도 제대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드러내기도 했고, 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벅찼던 불행을 겪으며 인간들의 삶이 초월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운명론적인 사고를 담아내기도 했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양생의 모습을 통해서서는 세상에 절망하여 중이 되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세종 임금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간직하여 잊을 수 없었던 자신의 행적을 대변해서 드러내기도 했다.

김시습은 또 <만복사저포기>를 통해 세종 임금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자신들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고 애절한 것이었는가를 밝히고, 세종 임금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신뢰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세종 임금에 대한 김시습의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의 마음, 이것은 개녕동에서 하씨녀의 이웃 사람으로 등장하는 네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개녕동은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과 사랑이 회고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개녕동에서의 이별을 앞두고 하씨녀는 네 명의 이웃 여인들을 초청하여 전별의 시를 쓰게 한다. 이웃 여인들의 시는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과 사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제 3자의 입을 통해 진술하게 하는 것이다. 제 3자의 입을 통해 진술되는 것이므로 여인들의 시는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게 되므로,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던가에 대해 보

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鄭)씨 여인이 제일 먼저 시를 지었다. 그녀는 배필을 만나지 못해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뒤 사랑을 이루었음에도 봄바람에 꽃이 지듯 허무하고 빠르게 사랑이 스쳐지나갔다고 토로한다. 그리고 단 한 번 찾아왔던 사랑이 속절없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다시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보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시에 담아서 드러내고 있다.

오(吳)씨 여인이 뒤를 이어 시를 지었다. 오씨 여인은 찾아오는 사람마저 없어서 혼자 사는 외롭고 힘든 자신의 처지와 배필을 만나서 즐거움에 흠뻑 젖어 있는 양생과 하씨녀의 입장을 대비시켜 드러낸 뒤 연리지(連理枝) 나무보다도 못한 자신의 박명함을 한탄하는 것으로 시를 맺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만 박명한 자신의 처지와 즐거움에 흠뻑 빠져있는 양생과 하씨녀를 대비시켜 드러냄으로써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이 얼마나 깊이 있고 밀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든가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김(金)씨 여인이 정씨 여인의 뒤를 이어갔다. 김씨 여인은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내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며, 이 만남이 세상에 알려져 사람들에게 의해 깨어지게 될 것을 걱정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 여인은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이 사람들에게 의해 훼손되지 않고 길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류(柳)씨 여인이 나섰다. 류씨 여인은 자신이 세상을 등지고 자연과 벗하며 님에 대한 정절을 굳게 지켜왔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모

두 지조를 버릴 때에도 아름다운 이름에 금이 갈 것을 걱정하며 힘들고 고통스럽게 정절을 지켜왔다고 했다. 그러나 양생과 하씨녀의 만남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를 마치고 있다. 류씨 여인은 역경 속에서도 정절을 지켜 온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양생과 하씨녀도 그들의 아름다운 만남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만복사저포기>는 김시습과 세종 임금과의 사이에 교류되었던 그들만의 내밀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만복사저포기>의 뒤에 나오는 <이생규장전>도 <만복사저포기>와 마찬가지로 남녀 사이의 애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만남과 사랑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모두 세종 임금과의 만남과 세종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두 작품에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금오신화』가 한 편의 완결된 작품으로 기능하려면 애정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두 작품에서 어떻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만복사저포기>에서 드러내려 했던 의미와 작가의식이 <만복사저포기>의 다음 작품인 <이생규장전>의 것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생규장전>을 분석하는 다음의 글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옥, 「금오신화와 만남의 문제」, 『고전소설 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pp.374-409.
김문희, 「인물의 내면소설로서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독법」, 『고소설연구』32

- 권, 한국고소설학회, 2011, pp.87-91.
- 김영모, 『조선지배층연구』, 일조각, 1977.12, pp.442-443.
- 김용덕, 「만복사저포기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2권,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82, pp.161-174.
- 김일렬, 「금오신화의 작품구조」, 『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pp.26-27.
- 김정석, 「금오신화에 나타난 김시습의 창작의식」, 『한국어문연구』6권, 한국어문연구학회, 1991, pp.282-283.
- 김창진, 「금오신화의 순환체계 연구(1)」, 『국제어문』4집, 국제어문학회, 1983, pp.5-37.
- 김창현, 「금오신화 체제에 나타난 창작방법과 비극적 낭만성」, 『인문과학』45권,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pp.101-123.
- 박일용, 「만복사저포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18권, 한국고소설학회, 2004, pp.50-55.
- 박희병, 「전기소설의 장르 관습과 금오신화」,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pp.198-214.
- 백민정,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고독과 사랑의 심리학적 이해와 문학적 의미」, 『어문연구』55집, 2007, p.220.
- 서규태, 「금오신화의 구조와 작가의식」, 『어문논집』24권, 민족어문학회, 1985, pp.633-648.
- 설중환, 「만복사저포기 : 분석심리학으로 읽어보기」, 『한국학연구』15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1, pp.253-254.
- 소재영, 「금오신화의 문학적 가치」, 『국문학논고』, 숭실대 출판부, 1989, p.19.
- 신재홍, 「초기 한문소설집의 전기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 『관악어문연구』14권,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9, pp.129-151.
- 안창수,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26집, 영남어문학회, 1994, pp.103-104.
- 유권석,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해원의 구현 양상 연구」, 『어문논집』58집, 중앙어문학회, 2014, pp.239-240.
- 윤경희, 「만복사저포기의 환상성」, 『한국고전연구』4권,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pp.247-254.
- 이성무, 「조선초기의 향리」, 『한국사연구』5호, 한국사연구회, 1970.3, pp.70-85.
- 이월영, 「만복사저포기와 하생기우전의 비교 연구」, 『국어국문학』120권, 국어국문학회, 1997, pp.186-196.

- 이재수,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비교 연구』, 『한국소설연구』, 선명문화사, 1973, p.62.
- 이주영, 『『금오신화』의 작품 구성 원리와 만남의 변주』, 『어문연구』40(3)집,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2012, pp.123-146.
- 이태진, 『서얼차대고』, 『역사학보』27권, 역사학회, 1965, pp.65-104.
-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 13』, 서울대, 1971, pp.38-39.
- 정병욱, 『김시습 연구』, 『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 pp.39-40.
-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연구』, 신아사, 1965, pp.494-498.
- 정환국,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지향과 구현화 원리』, 『고전문학연구』22권, 한국고
전문학회, 2002, pp.307-334.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p.127.
- 최기숙, 『귀신의 처소, 소멸의 존재론 -『금오신화』의 환상성을 중심으로-』, 『돈암어문
학』16집, 돈암어문학회, 2003, pp.7-38.
- 최삼룡, 『금오신화의 구조적 특질』, 『국어문학』21집, 전북대 국어국문학회, 1980,
pp.158-159.
- 최용철, 『금오신화의 판본』, 국학자료원, 2003, pp.30-596.

Abstract

The meaning of love and the consciousness of a writer
on <Man-Bok-Sa-Jeo-Po-Ki(萬福寺樗蒲記)>

Ahn, Chang-Soo

In this paper, I tried to show that 『Kum-O-Shin-Hwa(金鰲新話)』 is a novel that consists of five interlink stori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I tried to seek the meaning of love and the consciousness of a writer on <Man-Bok-Sa-Jeo-Po-Ki(萬福寺樗蒲記)>, which is the first one among five works in 『Kum-O-Shin-Hwa(金鰲新話)』.

As a result, I came to know that <Man-Bok-Sa-Jeo-Po-Ki(萬福寺樗蒲記)> is a work to reveal what did the meeting of just one with King Se-Jong(世宗) mean to Kim-Si-Seup(金時習), the author of <Man-Bok-Sa-Jeo-Po-Ki(萬福寺樗蒲記)> and how he had interpreted that meeting. In conclusion, Kim-Si-Seup(金時習) tried to show that the meeting with King Se-Jong(世宗) has been an important incident that had not only changed his life, but also made him understand and love King Se-Jong(世宗) deeply.

Key Word : the meaning of love, a change of life, the meaning of existence

안창수

소속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 csahn@pusan.ac.kr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